

2015년 대전시의 발전비전과 전략

류 순 현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2015년 대전광역시 비전과 발전전략

류순현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올해는 민선6기 대전호가 맞이하는 실질적인 출범 원년으로써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대전이 직면한 대내외적인 환경과 도전에 맞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기입니다.

최근의 시정현안을 돌아보면 호남KTX 서대전역 경유와 사이언스 콤플렉스 건립 등 지역과 지역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얽히고설킨 과제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충청권광역철도망, 과학벨트 등의 문제는 충청권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현안으로써 협력의 외연을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시기에 지역의 석학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정책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시정비전과 전략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성년이 되었습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진단하고 점검하는 한편,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각 방면의 욕구가 증대하면서 크게 3가지 축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첫째, 호남KTX 서대전 경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과 지역간에 상호 경쟁하는 한편으로 상생의 길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자주재정권 확충 등 지방과 중앙간의 갈등관계가 심화되는 속에 정부 출범 3년차로써 창조경제 등 국정과제에 대한 지방적 실현욕구도 한층 증대될 전망입니다.

셋째,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시민참여와 시민행복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와 같은 정책환경과 여건을 반영하여 올해 시정운영방향을 시민적 가치실현, 3대 역점추진과제, 현안사업 해결, 연계성의 강화에 두고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적 가치실현입니다.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시민의 위임에 의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도시간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면서 시민적 가치실현은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민선6기 대전시는 시정핵심 가치를 ‘시민과 경찰과 통합’에 두고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시민의 전방위적인 참여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대 브랜드 사업을 확정하는 등 95개 시민과의 약속사업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의 시정좌표를 「행복드림」으로 선정하고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0여명의 공무원이 기업과 1:1로 결연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기업지원도우미제를 역점 운영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2월말에는 500여명의 보통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행복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어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을 협의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참여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8명의 명예시장이 6개월 임기 속에 시정 각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시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 도시행정은 경제, 문화, 환경, 복지 등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고, 어느 하나 소홀이 할 수 없는 복합행정이지만, 그 중에서도 올해에는 3대 부문을 역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1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2,000개의 강소·벤처기업을 육성하며 GDP 규모를 전국 대비 3%까지 확대해 나가기 위한 「행복경제 1.2.3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새롭게 설치한 도시재생본부를 콘트롤 타워로 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화를 이뤄 도시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원도심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친서민, 친환경적이면서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스마트한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셋째,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민선6기가 출범한 지난해는 시정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주요현안 정상 추진에 진력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과 도청이전특별법 통과, 회덕 IC 건설, DCC 다목적전시장 건립 등 지역의 크고 굵직한 현안이 정상 추진케 도에 오른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작년의 추진성과를 기반으로 시정 각 부문에 대한 현안사업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필요한 시기로써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시민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계성의 강화입니다. 최근 호남KTX 서대전역 경유문제를 놓고 대전, 호남, 충북간에 갈등국면에서 배운 바와 같이 지역간의 경쟁 구조는 증가될 것이기에 지역간의 연계성 강화라는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충청권이라는 울타리에 있는 4개 시·도조차 사안에 따라서는 경쟁과 갈등과 상생이라는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합종연횡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기에 충청권행정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사이언스 콤플렉스 건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의 연계성 강화는 물론 출향인사에 대한 교감과 교류를 확대하고, 충청권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협조채널 구축도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따뜻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한파는 매섭기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돌밭을 우직하게 가는 소처럼(石田耕牛) 시민과 함께 시민행복과 대전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 갈 것을 다짐하면서 기초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